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8학번 김현수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 하반기 **Lam Research Korea** 신입 엔지니어 채용에 합격하게 되어 정
직원으로 **Field Service Engineer (FSE)**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점들과 4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취업준비를 하
면서 제가 깨닫고 배운 부분들을 이 글을 통해 전달하면서 후배님들의 대학생활과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및 직무 소개]

반도체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Lam Research라는 기업과 FSE 직무
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m Research는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FAB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California Fremont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공정
중 Deposition, Etch, Strip & Clean, Mass metrology에 해당하는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SE는 램리서치 장비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엔지니어로 고객사의 FAB 내에 장비 Set
up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활동을 담당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저희가 Set
up한 장비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Performance가 나올 때까지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장비 관련 Issue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을 분석하여 Trouble Shooting을
통해 조치를 취합니다.

* Trouble Shooting : 장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

[스펙]

1) 학점

전체 학점 : 4.25 / 전공 학점 : 4.33

여러분, 학점은 여러분들이 4년 과정동안 대학생으로써 본인의 임무를 성실하게 실천한
지표입니다.

현재 취업 시장은 차갑습니다. 즉, 취업 시장에 고학점은 Default 값입니다. 가끔 '학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력서 제일 윗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학점입니다. 여러분이 엄청 매

력적인 대내외 활동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학점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졸업 전에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꼭 학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높은 학점을 유지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이미 졸업을 하거나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여서 학점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점 이외에 할 수 있는 대내외 활동, 반도체 관련 교육 및 실습, 어학 성적 등을 통해 본인만의 경쟁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어학성적

토익 스피킹 IH (140점), OPIC IM2

저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토익 스피킹 IH 성적을 취득하고 졸업 후 OPIC IM2를 취득했습니다. 취업준비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반도체 현업에 20~30년 이상 근무하신 엔지니어분들께서 반도체 업계에서 영어는 필수라고 말합니다. 실제 제가 근무하는 환경의 반도체 장비는 다 영어로 되어 있으며, 오피스에서 이메일이나 본사와 소통을 위해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저는 취업을 했지만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영어라고 생각하여 현재도 사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갑작스럽게 공부한다고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대학 방학 기간동안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교육 이수 사항 및 대내외 활동

3-1) 교육 이수 사항

- 1.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종합실무과정**
(기간 : 2024-07-01~2024-08-23 (8주))
- 2. SEMI 대학생을 위한 반도체 공정 실습**
(기간 : 2023-08-21 ~ 2023-08-24 (36시간))
- 3. SPTA 반도체 공정 실습 –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분석 과정**
(기간 : 2023-01-16 ~ 2023-01-17 (16시간))

4. 영남대학교 반도체 (이론 + 장비운용) 공정 실습
(기간 : 2023-07-17 ~ 2023-07-22 (40시간))
5. E-koreatech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part1, part2
(기간 : 2023-02-01 ~ 2023-02-28 (20시간))
6. 원스펙 반도체 실무 온라인 실습 과정
(기간 : 2023-08-22 ~ 2023-09-01 (8시간))
7. 원스펙 엑셀로 배우는 반도체 데이터 분석과정
(기간 : 2024-02-21 ~ 2024-03-22 (12시간))

교육 이수 사항을 기재한 순서는 제 기준에서 해당 경험들을 통해 배운 점들이 많다고 느낀 경험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네요. 여러분들 뒤에서마져 얘기하겠지만 **“이런 교육과 경험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PTA 반도체 공정실습을 처음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학부에서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 해당 교육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구나. 더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당 교육들을 이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가고 스스로 알아가며, 반도체 관련 이론들을 습득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해당 이론들을 공정 실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접목하고자 공정 실습 경험을 했지만 단기간 내에 공정 실습에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정적이라 느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약 8주라는 장기간의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종합실무 과정을 신청해서 양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직접 다루면서 이론과 실무 경험에 대한 깊이를 키웠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지원자 본인은 이런 경험들을 했는가?”, “해당 경험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 즉, 면접에서 이러한 교육 이수 활동들을 통해 보는 점은 총 2가지입니다.

1. 해당 지원자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 반도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지

여러분, 항상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3-2) 대내외 활동

1. 아워턴 – 전공 및 취업 스터디
(기간: 2021-09-01 ~ 2024-06-30 (2년 6개월))
2. SEMICON KOREA 2023, 2024 참여
3. 까치산 갈비집 아르바이트 및 직원
(기간 : 2017-12-18 ~ 2019-04-19 (1년 5개월))
4. 더엑스샵 편집샵 아르바이트
(기간 : 2021-08-26 ~ 2022-08-16 (1년))
5. 필수학 학원 수학 강사
(기간 : 2022-09-01 ~ 2024-06-30 (1년 9개월))

저는 제 동기들이 다 하는 학부 연구생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생활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20대 청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실제 몸은 힘들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속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동아리, 교내, 교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람마다 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동기나 선후배,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 가게 사장님, 친한 지인들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시야를 넓히세요. 배운 점을 토대로 매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그리는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4) 수상 경력

1. 영남대학교 창의성/리더십/기업가 정신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일자 : 2021-12-06)
2. 한국전기전자재료 학회 주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일자 : 2023-06-22)
3.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주관 나노 소자 공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일자 : 2024-08-23)

4. KAIST 나노종합기술원 주관 공로상 (교육생 대표 역할)

(수상 일자 : 2024-08-23)

저는 교내, 교외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나가면 항상 리더와 발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리더의 역할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팀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역량을 토대로 팀원들의 장점을 파악하여 각자의 알맞은 역할들을 배정해준 후, 자주 소통하고 진행현황을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성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게 입상이 아니어도 그 속에 얻고 배우는 것들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능력 있고 제가 제일 믿는 친구가 리더를 하게 되어 하나의 팀원으로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 대내외 경진 대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팀활동을 하게 됩니다. 팀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인드보다 **‘하나의 팀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원들과 어떻게 내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란 본인이 주어진 역할이나 목표보다 20% 더 해내는 것입니다. 맡은 일 이상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팀원들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 또한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게 되면 면접관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연습한다고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학부에서 주관하는 대회나 팀 프로젝트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자진해서 참여하세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발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금방 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취업 과정]

1) 자기소개서

저는 4학년 1학기 때, 삼성전자 대학생 인턴을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높은 학점을 보유하고 있어 서류는 무조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약, 6개월이란 기간동안 어떻게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잘 적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삼성전자, ASML, AMAT, Lam Research 등 여러 기업에 서류를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적는 나름의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업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 다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기에 기재한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순위. 경험 정리하기

여러분, 글이란 것을 정해진 글자 수나 형식에 맞춰서 적으려고 하면 정말 적기도 싫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소서를 적기 전에 본인이 해온 경험들을 일련의 글로 쭉 나열해보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쭉 적고 그 속에서 왜 내가 이 경험을 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지 이 흐름대로 글을 쭉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틀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이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전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글을 적거나 말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제가 작성한 경험을 토대로 면접 질문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엮어서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순위. 기업, 직무 분석하기

자소서를 적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1. 기업분석 2. 직무분석**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찾은 후, **1순위. 경험 정리하기**에 본인이 적은 내용과 매칭시켜 **'읽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들이 다 쓸 것 같은 '저는 협업심이 뛰어납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문장이 아닌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본인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만의 Kick'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면접이든 자소서든 읽는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3순위. 문항 설계하기

문항 설계는 자소서를 적기 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토대로 어떻게 글자수를 할당한 것인지 미리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1순위. 경험 정리하기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적은 글들을 자소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글자수를 분배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을 적으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4순위. 도입 부분에서 차별성 가져오기

'소제목'과 '도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서류 합격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인사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소제목', '두괄식' 구성을 강조합니다.

자소서 문항에 해당하는 글을 다 작성한 후, 본인이 그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키워드를 잡아내고 수치적인 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가져와 소제목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입부에는 무조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두괄식'으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인적성 검사

Lam Research의 인적성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Lam Research FSE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보이는 인성 검사입니다.

모든 AI 역량 검사나 인성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일관성 있게 검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적성 검사를 보는 도중 이전 문항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다른 색깔로 문항을 체크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검사에 응하기 전 왜 Lam Research 이어야만 하는지, 왜 FSE 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준비한 후, 본인의 색깔에 맞게 검사에 응시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면접

저는 KAIST 나노종합기술원 면접, Lam Research Korea 1차면접, Lam Research Korea 1,2차 통합 면접 총 3번의 면접 경험이 있고 면접에서는 항상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의 끝맺음은 결국 면접입니다. 즉, 다른 어떤 과정보다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팀 프로젝트나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지만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말하는 스킬과 비언어적 태도입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두괄식으로 한 문장으로 답변한 후, 후에 자신의 생각을 Impact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위처럼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과정들을 하기에 기재하겠습니다.

1. 최대한 많은 모의면접 경험하기

취업 스터디에서 진행하는 모의면접을 주 1회씩 보거나 영남대학교 어울림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말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되었는지에 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해당 부분에서 기죽거나 처음 면접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의 면접에서 미리 연습한 후, **실제 면접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말하는 것은 단기간에 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을 때까지 평소에도 꾸준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언어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허리는 꼳꼳하게 세우고 양손에 계란을 쥐고 있다 생각하고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무릎에 손 얹기
- 2) 질문한 면접관님과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기
- 3) 항상 밝은 모습 유지하기

2. 자소서, 이력서에 기재한 부분에 대한 꼬리 질문을 단 후, 답변 연습하기

당연한 말이지만 면접은 자소서, 이력서에 대한 본인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경험 정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왜 해당 경험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적은 부분들을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준비하면 크게 막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했으면 하는 부분은 **문장 짤로 답변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키워드화 시켜서 핵심 내용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약 200개가 넘는 예상질문에 완벽하게 답변을 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준비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키워드화 시켜서 그 부분을 문장으로 구조화시켜서 말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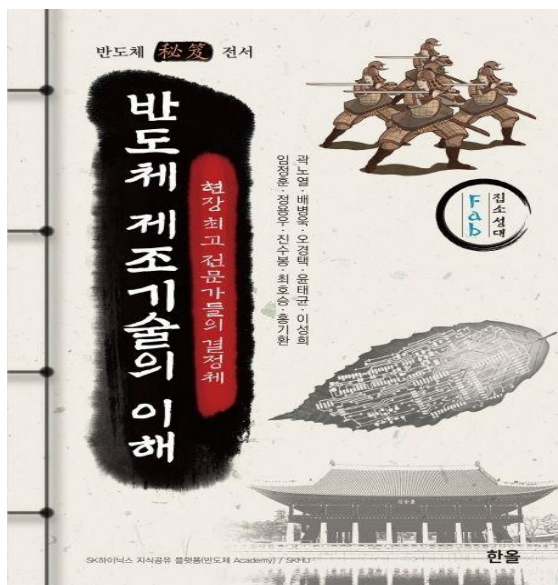
3. 1분 자기소개, 직무, 기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는 꼭 준비하기

1분 자기소개는 면접의 시작입니다. 면접관님이 본인의 말씀을 안 듣는다 생각해도 1분 자기소개에서 본인이 자신감 있게 말하고 면접을 시작하면 면접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1분 자기소개는 확실하게 외울 것을 당부합니다.

직무, 기업 지원동기는 “자소서에 본인이 적은 내용 + 산업에 대한 이해도 +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면접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내용에 깊이가 있을수록 더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기업, 직무 분석과 깊은 고민을 통해 본인만의 Kick 문장을 만들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본다는 것은 해당 면접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접에서 해당 질문을 받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입사 후 신입으로서 패기가 들어간 문장으로 Impact있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꾸준한 반도체 전공 공부하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현직자가 쓴 책인데 반도체 소자, 공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보는 직무, 전공 면접은 저희 학부에서 배우는 반도체 전공 지식만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PT 면접이 다시 진행되고 있고 타 반도체 기업 면접을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은 항상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책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반도체 심화 공정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웬만한 반도체 기업의 직무, 전공 면접은 ‘무조건’ 붙는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5. 영어 자기소개 PT

1. Introduction of the Applicant



Hyeon Su Kim
1999.07.23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New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March 2018 – February 2024

Awards

Grand Prize in Yeungnam University
Creativity/Leadership/Entrepreneurship
Competition
December 6, 2021

Grand Prize in KIEEME Capstone Design
Competition
June 22, 2023

Excellence Award in KAIST NNFC
Nano Device Process Competition
August 23, 2024

→ Communication, Teamwork

Work Experience

Employee at Kkachisan, Galbi, Daegu
December 2017 – April 2019

Sales Associate at The X Shop, Daegu
August 2021 – August 2022

Instructor at Feel Math Academy
September 2022 – June 2024

→ Customer-Centric Mindset

Semiconductor Training

SPTA, Electrical Characteristics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emiconductor Devices
January 16, 2023 – January 17, 2023

Yeungnam University, Semiconductor
Equipment Operation Process Practice
July 17, 2023 – July 21, 2023

SEMI, Semiconductor Process Practice for
University Students
August 21, 2023 – August 24, 2023

KAIST Nano Fab Center Comprehensive
Practical Training
July 1, 2024 – August 23, 2024

→ Engineering Mindset



Lam Research Korea FSE 최종 면접은 PT 5분 영어 자기소개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위 사진과 같이 제 경험들을 토대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했습니다.

이후, 제가 Field에서 근무하기 위해 체력적인 강점과 FAB 내에서의 근무 경험, 고객에게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4년간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근무하면서 고객 지향적인 태도로 근무를 수행한 경험, Engineer로서, 이수한 교육들과 엔지니어적인 사고를 적용해 성과를 이룬 경험으로 자기소개 PT를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Lam Research Korea 면접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기에 기재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마무리를 하며]

1. 취업은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처음이어서 낯설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모르겠어요.' 가 아닌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를 읽으면서 '엇... 난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계 기업은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만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친한 형이 "할 수 있는데 지레 겁먹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일단 부딪히고 도전해봐" 라는 말을 듣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토익스피킹 IH, OPIC IM2라는 성적으로 총 3군데 (ASML, AMAT, Lam Research)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 서류에 합격하고 현재 당당하게 최종합격을 거쳐 Lam Research FSE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은 단 1승만 하면 된다.

저도 약 1년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번 미끄러졌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져서 좌절하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고 '결국 해낼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다양한 교육들을 이수하고 반도체 관련 경험들을 찾아 하면서 공백기 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여러분, 취업은 단 1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대학 생활 4년동안 소재관 117호에서 같이 공부한 제 동기들, 취업 준비를 같이한 선, 후배님들, 많은 도움을 주신 류정호 교수님, 박정민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EL : 010-9109-1506 / E-mail : kim91091506@gmail.com / Instagram ID : __khsss